

한자교육 및 인성교육을 위한 童蒙書 연구*

— 『弟子規』의 내용과 현대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상덕**

【목 차】

1. 들어가기
2. 『弟子規』 편찬의 역사적 배경과 현대적 가치
3. 『弟子規』 핵심 사상의 根源과 수용 양상
4. 『弟子規』의 구성과 내용 분석
 - 1) 부모에 대한 효도와 長者에 대한 공경
 - 2) 사회생활과 처세의 방법
 - 3) 배움과 실천
5. 인성 교재로의 활용과 현실적 문제점
6. 나오기

【초록】

『弟子規』는 기초한자 교육 및 인성교육을 위한 童蒙書다. 그 중에서도 한자 학습보다는 윤리도덕교육에 더 큰 목적을 둔 책이라 할 수 있다. 책은 “總敍”를 포함하여 총 여덟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주제는 셋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부모에 대한 효도와 長者에 대한 공경, 둘째는 사회생활과 처세의 방법, 셋째는 배움과 실천에 관한 내용이다. 대부분 孔子를 대표로 하는 유교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인간의 기본 도리와 처세법을 자세히 설명해 놓고 있다. 내용 중에는 21세기 현실생활과는 다소 부합되지 않는 낡은 사상과 행동지침이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전통문화 창달과 인성교육에 유익한 교재라

* 본 논문은 심사 중의 지적에 따라, 제목과 각주를 수정하거나 보충하였고, 일부 오역과 오타자를 바로잡았으며, 중국 ‘國學熱’과 『弟子規』와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비판적 관점을 보충하였다. 그러나 “몽학서가 우리의 교육현실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기 위해서 기존 몽학서의 유통과 상관관계를 설정해 비교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론적인 태도일 것”이라는 지적과 “창의적인 구상과 방법으로 교육 현장 특히 한자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교육방법의 구체적 가능태를 제시하여 논지를 살려가는 것도 좋을 것”이라는 지적은, 논문 제목이 수정되고 또 논지가 다소 변화됨에 따라 본고에서 반영을 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 지적은 이후 “교육” 관련 논문을 쓸 때 꼭 반영하고자 한다.

** 慶尙大學校 中語中文學科 副教授 (hansd58@hanmail.net)

고 판단한 중국 교육계에서는 현재 『弟子規』 閱讀과 교육을 활발하게 전개시키고 있다. 중국의 ‘國學’ 열기와 함께 인성교육의 핵심으로 활용하고 있는 『弟子規』는 개인주의와 황금만능주의가 팽배한 현대사회의 아동들에게 전통문화를 이해시키고 바람직한 가치관과 인간성을 회복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런 현상에 대한 치밀한 분석은 우리나라에서 『四字小學』 등과 같은 교재로 한자 및 인성교육을 시키는데 있어서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키워드】

弟子規, 童蒙書, 漢字教育, 人性教育, 傳統文化

1. 들어가기

儒學은 중국문화의 근간으로, 중국인들의 인생관과 가치관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중심사상이다. 물론 儒學이 역사적으로 홀대를 받았던 시기도 없지는 않았지만, 儒學의 역사는 곧 중국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儒學의 무게는 막중하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 오사신문화운동과 문화대혁명을 거치면서 儒學의 위상은 심대한 타격을 받았고, 이로 인해 중국인들은 사상과 가치관에 큰 혼란을 겪어야만 했다. 즉 오사시기 때는 “打到孔家店”이라는 구호 아래, 문화대혁명 기간에는 “批孔”이라는 구호 아래, 孔子를 중심으로 한 유가사상과 전통문화는 철저히 타도되고 배격되었었다.

그러나 개혁·개방정책에 따라 중국이 점차 정치와 경제에 안정을 찾고, 국제적으로 막강한 존재감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즉 민족문화의 부흥이라는 차원에서 儒學의 가치와 위상을 회복시키고, 전통의 우수성을 현대화하여 이를 적극 활용하려고 하는 변화의 바람이다. 다시 말해, 밖으로는 중국이 문화대국임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안으로는 국민들에게 바람직한 인성을 회복시켜주려는 노력 말이다. 그 증거 중의 하나가 각국에 수출하고 있는 孔子學院 설립이요, 중국내의 ‘國學’ 열기라 하겠다.

공자학원은 세계 최초로 2004년 우리나라 서울에 설립이 된 이후 2015년 말까지 134개 국가(지역)에 500개가 설립되었고 1,000개의 공자학당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¹⁾ 주요 목적은 중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중국어를 널리 보급하고 중국문화와 國學 교육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다. 문화교류 중심의 교육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중국이 세계장악을 위한 또 다른 차원에서의 대국적 야망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와 맥을 같이 하여 중국 내에서는 儒家문화 회복과 인성교육 및 도덕교육 차원에서 國學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童蒙書 『弟子規』가 있다.

『弟子規』는 최근 아동에게는 인성교육이 될 수 있고 청소년이나 성인들에게는 인문소양교육이 되기에 적합한 책이라 판단한 결과, 사회 전반에서는 이를 閱讀하고 교육시키려는 열풍

1) http://www.hanban.org/confuciousinstitutes/node_10961.htm (검색일:2016.07.30.) 참조.

이 크게 일고 있다. 가정에서는 물론, 각 학교나 기업에 이르기까지 훌륭한 도덕성과 가치관, 그리고 바른 생활습관을 체화시키는데 『弟子規』를 이미 학습교재로 삼고 있거나, 혹은 앞으로 각 가정과 학교에서 인성교재로 삼도록 하자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그렇다면 『弟子規』는 어떤 역사적 배경에서 어떤 목적으로 편찬이 된 책이며, 어떤 구성과 내용을 가지고 있고, 어떤 교육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에 현재 중국에서 학습 열풍이 일고 있는지, 그리고 인성교재로서의 활용에는 문제가 없는지 등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弟子規』는 그동안 중국 아동들의 인성교육에 큰 역할을 해 왔고, 또 연구도 수없이 진행되어 왔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 책에 대한 관심도 많지 않았고 연구도 본격화되지 않은 실정에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弟子規』에 대한 관심제고와 연구 활성화 차원에서 초보적 단계의 연구를 진행해 볼까 한다.²⁾

2. 『弟子規』 편찬의 역사적 배경과 현대적 가치

중국은 고대로부터 아동을 위한 蒙學 교육에 특별한 관심이 많았다. 이는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는 다양한 蒙學 교재들이 그 실상을 잘 말해주고 있다. 중국에서의 ‘蒙學’이란 넓은 의미에서 아동을 위한 교육체제나 수업방법·교재 등을 아우른 ‘계몽교육’ 전체를 지칭하기도 하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계몽교재인 아동용 학습교재를 지칭하기도 한다.

狹義에서의 고대 蒙學 교재는 周代의 『史籀篇』을 그 출발로 하여 雛形期(西周末年~漢代), 定型期(魏晉南北朝~宋元), 承襲期(明~清末)의 발전단계를 거쳐 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³⁾

먼저 周秦 때의 몽학교재는 주로 글자를 가르치는 동시에 덕성교육과 일반 상식을 전수하기 위해 편찬을 했었는데, 맨 먼저 周代 때 『史籀篇』이 나왔다. 그 후, 秦代 때 『倉頡篇』, 『爰歷編』, 『博學篇』⁴⁾과 司馬相如의 『凡將篇』, 史游의 『急就篇』, 李長의 『元尚篇』, 揚雄의 『訓纂篇』, 賈飭의 『滂喜篇』, 蔡邕의 『勸學篇』 등이 나왔다. 이 중 후세까지 크게 영향을 주었던 책은 『急就篇』이었다. 魏晉南北朝 때에 와서는 識字도 하면서 상식적인 윤리도 익힐 수 있도록 『發蒙記』, 『千字文』, 『雜字指』, 『雜字要』 등이 편찬되었는데, 이 중에서는 『千字文』이 가장 널리 그리고 가장 오래 유행하였다.

형식이나 내용면에서 동몽서가 크게 발전이 되었던 시기는 唐代에 와서다. 이 때에 와서도 이전의 『急就篇』, 『千字文』 등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었지만, 여기에 명구들을 모아 묶은 『太公家訓』이라든가, 글자와 역사지식을 익히게 하는 『兔園策』과 『蒙求』, 시가를 모아 묶은 『文場秀句』 등이 보태졌고, 이 외에도 상식을 익히면서 글씨도 익히는 방식의 교재들이 나와 학

2) 본 논문에서 인용하는 『弟子規』의 본문은 李毓秀原著, 陳才俊主編의 『弟子規』(海潮出版社, 2011.)를 저본으로 함.

3) 중국 童蒙書의 발전단계와 그 특징은 劉艷卉, 「我國古代蒙學識字教材的歷史沿革」, 『安陽師範學院學報』, 2002, pp.43-44의 내용을 참고하였음.

4) 『倉頡篇』, 『爰歷篇』, 『博學篇』 이 세 권은 漢代 때 한 권으로 합쳐졌는데, 이 합본을 『倉頡篇』이라 하기도 하고 『三倉』이라 부르기도 함.

습의 폭을 넓혀주었다.

종합적 성격의 교재에서 전문성을 가진 교재로 분류가 가능해지게 된 시기는 宋代로부터 淸 중엽에 이르는 시기에 나온 교재들이다. 識字는 물론이고 윤리도덕 내용까지 아우른 교재들이 많아졌다는 말이다. 특히 송대 이후에 와서는 몽학 교재들이 다양한 체제와 광범한 내용을 가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大儒들이 몽학교육에까지도 큰 관심을 가지게 됨으로써 전통의 몽학교육이 활성화되고, 이로 인해 몽학교재들이 호황기를 누릴 수 있었다. 이 때 종합적 성격의 『三字經』, 『百家姓』 등이 나왔고, 『理性字訓』, 『小兒語』, 『名賢集』 등의 倫理道德教育 교재가 나왔으며, 역사지식을 위한 『十七史蒙求』, 『叙古千文』, 『小學』, 『章訓』, 『訓蒙詩』, 『小學詩禮』, 『章蒙須知韻語』 등의 詩歌類 교재도 나왔다. 또한 『名物蒙求』, 『龍文鞭影』, 『幼學瑯林』 등의 상식교재도 편찬 보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女小兒語』, 『改良女兒經』, 『女四書』 등과 같이女兒만을 위한 교재도 편찬이 되었다. 따라서 여러 유형의 동몽서 속에는 다양한 상식과 도덕, 그리고 시대성까지도 반영된 책들이 많아짐으로써 학습의 폭이 넓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청대 중엽부터 민국 초까지는 서양식 교육에 영향을 받아 전통적 동몽교재에 대한 변화가 요구되었고, 이에 따라 근대교과서의 모습을 갖춘 예컨대 『蒙學課本』과 같은 책이 나와 전통 몽학교재를 대신하기도 하였지만, 이전의 책을 개편한 趙南星의 『三字經注』, 黃周星의 『重編百家姓』, 吳沈의 『皇明千家姓』, 周履靖의 『廣易千文』 등이 나오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전보다는 새로운 윤리교육 내용을 담은 新訂의 『御制百家姓』, 何桂珍의 『訓蒙千字文』 등이나, 농촌·상인 자녀들에게 유용할 수 있었던 王相의 『世事通考雜字』 같은 각종 ‘雜字’ 형식의 교재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청대에 편찬된 교재 중에서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뛰어났던 교재는 『弟子規』라 할 수 있다. 이 『弟子規』는 많은 한자를 익히도록 되어 있지는 않지만⁵⁾ 풍부한 윤리내용을 담고 있어서 아동들이 쉽고 재미있게 글자를 익히면서도 인성교육에도 큰 유익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당시 淸 정부에서는 “아동에게 글을 가르치고 올바른 가치관을 기르게 하는 최고”⁶⁾의 교재라고 높이 평가함과 동시에 어린이 필독교재로 활용토록 하였다. 그러나 『弟子規』가 언제나 중시되었던 것은 아니다. 중화민국이 성립된 후 『弟

5) 전체 내용 중에서 중복되지 않는 신출한자만을 정리하면 총 482자밖에 되지 않음.

(加可家却奸看拣諫改皆去居踞建揭見缺結兼敬更警輕戒告故辜高聖功工恐恭果過冠關管盥寬壞巧挽教驕俱具口求苟卷劝几归贵叫規近謹及急其器已箕起棄既氣记騎紧潔諾难乃内年倭怒鬧紐能多但短端撻堂倘當代大待對德到道讀頓冬同懶乱来略兩諒斂力列帘禮老路流类稜履理離立磨馬莫弯袪妄忘忙望味勉眠面名命明慕模母貌睦無墨文門問聞勿物媚未泯反房方拜百凡泛法僻壁變病屏步报补服覆復僕不夫富浮父分忿婢悲非婢贫事使士思死私邪詐词三上常床相喪伤嘗塞索色生舒書惜先善說成省聲誠少少所俗束束速挽手搜漱羞首雖誰随須孰循順馴乘承侍市是時視食饰信新晨身室心深甚我乐惡安案眼愛夜若藥扬語焉言掩業餘如與易闕然硯悅厌盈秒藝養吾汚温緩畏要揺欲容用于友遇虧忧扰原怨園远位爲唯幼惟愈有柔猶肉恩飲揖泣應倚宜疑衣義以己怡移而貽益人仁咽忍一日任入子字慈者自誓作藏場墙將長在才財載低的籍典前傳转切絶漸井定正淨弟祭諸躋適齊早朝存尊從纵終坐走酒昼中重衆即增憎之地志知至遲直盡真進疾执且借次此車錯札責處戚天擅踐谄輒清聽滯触聰最趨醜出取就醉置致則親称擇通退偷鬪跛便偏敝暴彼必毕筆下何夏學限閑奚害势行虚賢兄呼好糊號或昏華禍話確还回孝晓後訓诹欣喜喜)

6) 張慧玲, 『『弟子規』對現代家庭教育的價值和意義』, 『山西師大學報(社會科學版)』, 2009, p.128에서 재인용. “開蒙養正最上乘.”

子規』를 포함한 전통의 童蒙書들은 “共和 정신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초등학교의 讀經 과목에서 폐지해도 무방하다는 교육부의 행정지시가 있었고, 이에 따라 『弟子規』와 같이 ‘봉건’ 윤리도덕을 선양해 오던 몽학교재들은 자연스럽게 버림을 받게 되었다.”⁷⁾ 특히 문화대혁명 기간에는 당시의 정치적 강령과 노선의 원칙에 입각하여 더 강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⁸⁾

그러나 중국은 개혁 개방 이후 신세대에 대한 다양한 소질교육과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한 덕육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다시 國學을 중시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弟子規』는 그 어떤 교재보다 큰 관심을 받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한 실상은 다음과 같은 현상에서 쉽게 증명된다. 즉, 北京市는 2007년부터 초등학교에서 『弟子規』 교육을 시범적으로 시작해오다가, 2011년 북경시 최초 國學 地方教材 『弟子規新解』를 심의 통과시킨 후, 2011년 9월부터는 북경시 전 지역의 초등학교에 확대 보급했으며, 遼寧省에서는 성 전체 초등학교들과 학부모·교사들에게 TV방송국에서 방영하는 『弟子規講解』를 시청하도록 하여 도덕소양 교육의 일환으로 활용하였다. 또 陝西省 寶鷄市 같은 경우도 2010년 시 전체 초·중학교에 『弟子規』 교육을 수업시간으로 끌어들이 학생들의 올바른 행동습관을 강화시키고 인문소양을 쌓아가도록 하였으며, 海南省에서는 靑少年教育基地를 세워 明·清代의 私塾을 다시 重建하고, 『弟子規』 학습을 통하여 성 전체 학생들에게 전통 문화교육 보급 활동을 공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弟子規』는 중국의 國學 열기와 함께 인문학 차원에서 접근한 다양한 해설서가 쏟아져 나오고,⁹⁾ 이에 대한 연구와 각종 전문 강좌도 많아지면서, 유아원·초·중고의 울타리를 넘어 대학·기업·黨政 기관에까지 큰 영향을 주고 있다.¹⁰⁾

『弟子規』가 오늘날 國學 열기 중심에 서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 전통사상과 덕육교육이 필요한 아동·청소년들은 물론이고, 또 성인이지만 지나친 황금만능주의와 개인주의 사상으로 인해 도덕관념도 없이 사리분별을 못하고 살아가는 사회구성원들에게도 건강한 삶, 향기로운 인생을 사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확신, 나아가서는 나라 전체가 행복할 수 있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물론 이 國學 열기와 『弟子規』 교육이 현대사회에 노정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는 없다. 하지만 올바른 개인의 가치관을 정립하고 바람직한 공동체 생활을 영위해 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다. 그렇다면 『弟子規』는 누구에 의해 어떻게 편찬되었는지 章을 달리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7) 國學 중시 열기에 대한 현상은 宋彥鋒, 「從『弟子規』的歷史考察看傳統文化的現代價值」, 『焦作大學學報』, 2011, p.6의 논문을 참고하였음.

8) 方文霞·宿丹萍, 「以『弟子規』為例探究傳統文化的復興及價值」, 『語文學刊』, 2015, p.73. “浸透孔孟毒素的启蒙教科书, 毒害廣大靑少年和農民, 維護的是封建統治.”

9) 2010년을 전후하여 나온 전문 도서만 보아도 蔡禮旭의 『細講弟子規』(華藝出版社, 2007), 錢文忠의 『錢文忠解讀『弟子規』』(中國民主法制出版社, 2010), 鐘茂森의 『細讀弟子規』(世界知識出版社, 2010), 王俊閔의 『弟子規密碼』(中國文聯出版社, 2010), 張明帥의 『每天讀點『弟子規』』(朝華出版社, 2010), 郭文斌의 『『弟子規』到底說了什麼』(中華書局, 2011), 任登第와 牛淑卿의 『大家都學『弟子規』』(世界知識出版社, 2011), 安子琴의 『弟子規新解』(金盾出版社, 2016) 등이 있음.

10) 『弟子規』의 열기에 대한 상황은 黎紅雷, 「儒學回歸當代中國」, 『周易研究』, 2013, pp.73-74 참고.

3. 『弟子規』 핵심 사상의 根源과 수용 양상

『弟子規』는 청대 康熙 연간의 秀才였던 李毓秀가 편찬한 것이다. 李毓秀의 字는 子潛이요 호는 采三이며 山西 絳州 城關人이다. 그는 관직에 꿈이 있었지만 수차 시험에 실패하고, 마침내는 벼슬을 포기하고 물러나 敦復齋를 세운 후 후학양성에 힘쓰면서 『大學』과 『中庸』 등을 깊이 연구하면서 일생을 보냈던 학자 겸 교육자였다.¹¹⁾ 『弟子規』는 그가 다년간 학동들을 가르치면서 얻은 경험을 종합하고 학동들에게 필요한 전통사상과 예의범절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원래 서명은 『訓蒙文』이었지만, 清代 山西 浮山の 儒生 賈存仁이 이 책에 수정을 가한 후 『弟子規』라 개명하였다. 오늘날 통용되고 있는 『弟子規』의 본문은 바로 賈存仁의 수정본이다.

총 1,080자로 구성된 『弟子規』는 세 글자가 한 구절을 이루고 있고, 두 구절마다 압운이 되어 있다. 리듬감이 뛰어나 학동들이 낭송과 암기를 하기에 좋으며, 재미있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편찬되었다. 책의 내용은 주로 학동들이 집에 있을 때나 혹은 밖에 나가 사회생활을 할 때 지켜야 할 예의 규범 등을 구체적으로 종합해 놓고 있다. 따라서 “誦讀하고 講解하기에 도 편하고 모두가 실용 가능하며”, 또 “어린 아이들에게 올바른을 가르치는 최고의”¹²⁾ 아동용 도서라는 평가가 가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결과는 李毓秀 개인의 독특한 사상과 편집능력에 따른 것만은 아니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공자의 ‘述而不作’ 정신과 방법을 원칙으로 삼아, 孔子의 핵심사상인 “孝·悌·仁·愛”를 중심축으로 하여, 그동안 축적된 각종 몽학도서들의 창작 지혜와 교육에 적합한 여러 특징들을 취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弟子規』 내용의 특징 중 하나는 고대 聖賢의 말이나 그들이 강조했던 글들을 그대로 차용하거나 혹은 약간 변형시켜 이를 적절히 수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弟子規』 맨 첫머리에 안배된 “總敍”의 내용이다. 여기서 밝히고 있는 총 여덟 구절의 24글자¹³⁾는 책 전체 내용의 總則에 해당되는데, 이는 다른 아닌 『論語』의 「學而」篇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다. “總敍” 이후의 나머지 목차들도 이에 근거하여 “入則孝”, “出則悌”, “謹”, “信”, “泛愛衆”, “親仁”, “餘力學文”으로 구성해 놓고 있다. 구체적으로 『弟子規』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거나 참고한 내용들을 보면 역시 『禮記』 중의 구절이고, 그 다음이 『童蒙須知』의 내용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겨울에는 잠자리를 따뜻하게, 여름에는 서늘하게 해드려야 하며, 새벽에는 문안을 드리고 날이 저물면 잠자리를 정해드려야 한다.(冬則溫, 夏則清, 晨則省, 昏則定.)”는 본문내용은 『禮記』 「曲禮」의 “무릇 사람의 자식으로서 예절을 행함에,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 드리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드리며, 날이 저물면 잠자리를 정해드리고 새벽에는 문안을 드려야 한다.(凡

11) 李毓秀의 저작으로 『四書正偽』, 『四書字類釋義』, 『學庸發明』, 『讀大學偶記』, 『宋孺夫文約』, 『水仙百詠』 등이 있으며, 그 중에서 『弟子規』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12) 張迎春, 「『弟子規』의 養成教育思想」, 『教學與管理』, 2001, p.9. “便於誦讀講解而皆切於實用的”, “開蒙養正之最上乘.”

13) 李毓秀原著, 陳才俊主編, 『弟子規』, 海潮出版社, 2011, p.2. “弟子規, 聖人訓, 首孝弟, 次謹信, 泛愛衆, 而親仁, 有餘力, 則學文.”

爲人子之禮, 冬溫而夏清. 昏定而晨省.)”는 내용을 차용한 것이다.

② “밖에 나갈 때는 반드시 말씀을 드리고, 돌아와서는 반드시 부모님을 뵈어야 한다. 사는 곳은 일정한 곳이 있어야 하고, 직업은 수시로 바꾸지 말아야 한다.(出必告, 反必面, 居有常, 業無變.)”는 본문내용은 『禮記』 「曲禮」의 “무릇 자식 된 자는 나갈 때는 반드시 말씀을 드리고, 돌아와서는 반드시 부모님을 뵈며, 나가서 놀 때는 반드시 일정한 곳이 있어야 한다.(夫爲人子者, 出必告, 反必面, 所遊必有常.)”는 내용을 차용한 것이다.

③ “아버지께 아픈 곳이 있으면 약을 자식이 먼저 맛본다.(親有疾, 藥先嘗.)”는 본문내용은 『禮記』 「曲禮」의 “임금이 병에 걸려 약을 복용할 때는, 신하가 먼저 그 맛을 보도록 하고, 아버지가 병에 걸려 약을 복용할 때는, 자식이 먼저 그 맛을 보도록 한다.(君有疾飲藥, 臣先嘗之, 親有疾飲藥, 子先嘗之.)”는 내용에서 참고한 것이다.

④ “초상을 당했을 때는 예의를 다하고, 제사를 지낼 때는 정성을 다해야 한다. 돌아가신 분 모시기를 살아계실 때처럼 해야 한다.(喪盡禮, 祭盡誠, 事死者, 如事生.)”는 본문내용은 『禮記』 「中庸」의 “돌아가신 분 모시기를 살아계실 때처럼 하고, 없는 자 모시기를 있는 자 모시듯이 하는 것, 이것이 효도의 지극함이다.(事死如事生, 事亡如事存, 孝之至也.)”라고 한 내용을 근거로 한 것이다.

⑤ “아버지께 잘못이 있으면 말씀을 드려 고치도록 해야 한다. 자기 얼굴색을 기쁘게 하고, 자기의 목소리를 부드럽게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쁠 때 다시 말씀드린다. 울부짖으며 뒤를 따라 가다가, 종아리를 맞더라도 원망을 말아야 한다.(親有過, 諫使更, 怡吾色, 柔吾聲, 諫不入, 悅復諫, 號泣隨, 撻無怨.)”는 본문내용은 『禮記』의 “무릇 부모에게 허물이 있거든 기색을 가라앉히고 얼굴빛을 온화하게 목소리는 부드럽게 해서 간해야 한다. 간하여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공경함과 효성을 발휘해서 부모가 기뻐할 때 다시 간하도록 한다. 기뻐하지 않더라도 마을에서 죄를 얻는 것보다는 차라리 부모에게 자꾸 간하는 것이 더 낫다. 부모가 화를 내며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매질을 해서 피가 나더라도 감히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더 공경하고 효도를 해야 한다.(凡父母有過, 下氣怡色, 柔聲以諫. 諫若不入, 起敬起孝, 悅則復諫. 不悅, 與其得罪於鄉黨州閭, 寧熟諫. 父母怒不悅而撻之, 流血不敢疾怨, 起敬起孝.)”는 내용에 근거하고 있다.

⑥ “아버지 상을 당한 삼 년 동안은, 항상 애도를 해야 하고, 부부간의 잠자리를 따로 하고, 술과 고기를 금해야 한다.(喪三年, 常悲咽. 居處辨, 酒肉絕.)”는 본문내용은 『禮記』 「問喪」의 “그러므로 곡을 때도 없이 하면서 삼년 동안 상을 잘 치루고 사모하는 마음이 곧 효자의 뜻이요 인정의 열매다.(故哭泣無時, 服勤三年, 思慕之心, 孝子之志也, 人情之實也.)”라고 한 내용을 참고한 것이다.

⑦ “길에서 어른을 만나면, 빨리 달려가 인사를 드리고, 어른이 아무런 말을 안 하면, 물리나 공손하게 서 있어야 한다.(路遇長, 疾趨揖, 長無言, 退恭立.)”라고 한 본문내용은 『禮記』 「曲禮」의 “길에서 어른을 만나면 달려가 바르게 선 다음拱手를 하고 어른이 함께 말을 하면 대답하고 함께 말을 하지 않으면 달리는 걸음으로 물리나야 한다.(遭先生於道, 趨而進, 正它拱手, 先生與之言則對, 不與之言則趨而退.)”는 내용에 근거하고 있다.

⑧ “걸을 때는 조용하게 걷고, 서 있을 때는 단정히 서 있어야 한다.(步從容, 立端正.)”는

본문내용은 『禮記』 「曲禮」의 “서 있을 때는 바른 자세로 서서, 남의 말을 엿듣지 않는다.(立必正方, 不傾聽.)”라고 한 내용과, 본문 중의 “문지방을 밟지 말 것이며, 비스듬하게 기대지 말아야 한다. 다리를 뻗고 앉거나 걸터앉지 말며, 다리를 흔들지 말아야 한다.(勿踐闕, 勿跛倚, 勿箕踞, 勿搖髀.)”라고 한 내용은 『禮記』의 “걸어서 다닐 때는 거만하지 말며, 서 있을 때는 몸을 한쪽 다리에 의지하여 비스듬히 서지 말라.(遊毋倨, 立毋跛.)”라고 한 내용에 근거하고 있다.

⑨ “문을 들어서고자 할 때는, 누가 있는지를 물어 보아야 한다.(將入門, 問孰存.)”라고 한 본문내용은 『禮記』의 “문 밖에 두 사람의 신발이 있고, 말소리가 들리면 들어가고, 말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들어가지 말라.(戶外有二屨, 言聞則入, 言不聞則不入.)”는 내용에 근거하고 있다.

또 일부 내용은 『童蒙須知』의 내용을 참고하고 있으니,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부모님께서 부르시거든, 대답을 하고 꾸물거리지 말아야 한다. 부모님께서 무엇을 시키시면, 행동을 게을리 말아야 한다.(父母呼, 應勿緩, 父母命, 行勿懶.)”는 본문내용은 『童蒙須知』의 “만약에 부형이나 웃어른이 부르면, 마땅히 빨리 걸어서 앞으로 나가야 하고, 동작을 느리게 해서는 안 된다.(若父母長上有所召喚, 却當疾走而前, 不可舒緩.)”는 내용을 근거로 한 것이다.

② “어른 앞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소리를 낮추어서 해야 한다.(尊長前, 聲要低.)”라고 한 본문내용은 『童蒙須知』의 “무릇 사람의 자제된 자는 언제나 나지막한 소리로 숨을 차분하게 하고, 말을 할 때는 소상하게 천천히 해야 한다.(凡爲人子弟, 須是常低聲下氣, 語言祥緩.)”는 내용에 근거하고 있다.

③ “싸움으로 시끄러운 곳에는 절대 가까이 가지 말고, 간사한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묻지 말라.(鬪鬪場, 絕勿近, 邪僻事, 絕勿問.)”는 본문내용은 『童蒙須知』의 “무릇 떠들며 싸우는 곳에는 가까이 가지 말며 무익한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凡喧哄爭鬪之處, 不可近. 無益之事, 不可爲.)”는 내용을 참고로 한 것이다.

④ 발(커튼)을 걷어 올릴 때, “발은 천천히 열며, 소리가 나서는 안 된다.(緩揭帘, 勿有聲.)”라고 한 본문내용은 『童蒙須知』의 “문을 열거나 발을 걷어 올릴 때는 반드시 천천히 손을 가볍게 눌러서, 진동으로 사람이 놀래는 소리를 내지 말아야 한다.(凡開門揭帘, 須徐徐輕手, 不可令震驚聲響.)”는 내용에 근거하고 있다.

⑤ “아침에 기상은 일찍 하고, 밤에 잠은 늦게 자야 한다. 늙음은 쉽게 오나니, 지금의 이때를 아껴라.(朝起早, 夜眠遲, 老易至, 惜此時.)”라고 한 본문내용은 『童蒙須知』의 “무릇 자제는 반드시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야한다.(凡子弟, 須要早起晏眠.)”는 내용에 근거하고 있다.

⑥ 공부하는 공간을 관리할 때, “방은 깨끗하게 하고 벽도 깨끗하게 해야 한다. 책상은 늘 잘 정돈을 해 놓고, 붓과 베풀는 바르게 놓아야 한다.(房室清, 牆壁淨, 几案潔, 筆硯正.)”라고 한 본문내용은 『童蒙須知』의 “무릇 사람의 자제되는 자는 그 거처하는 곳을 청소하고 책상위의 먼지를 털어내고 닦아 깨끗하게 해야 한다.(凡爲人子弟, 當灑掃居處之地, 拂拭几案, 當令潔淨.)”는 내용과, “무릇 공부를 할 때는 책상을 잘 정돈해서 깨끗하고 단정하게 한 다음 책을 가지런하게 정리해 놓아야 한다.(凡讀書, 須整頓几案, 令潔淨端正, 將書冊整齊頓放.)”는 내용에

근거하고 있다.

⑦ 책을 정리하고 관리할 때, “비록 급한 일이 있더라도, 책은 가지런하게 정리를 해 두어야 한다.(雖有急, 卷束齊.)”라고 한 본문내용은 『童蒙須知』의 “비록 몹시 급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책을 포개어 쌓아 놓고 가지런히 정돈한 뒤에 일어나야 한다.(雖有急速, 必待掩束整齊, 然後起.)”는 내용에 근거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禮記』와 『童蒙須知』의 내용을 주로 근거했지만 이 외에도 陳淳의 『小學詩禮』, 真德秀의 『家塾常儀』, 端蒙과 董鑄의 『程董學則』 등과 같은 책에서 참고한 내용이 있다는 분석도 있지만¹⁴⁾ 비슷한 원전의 내용을 여러 책에서 반복하거나 가공함에 따른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상의 고찰로 알 수 있었듯이 『弟子規』가 가장 많이 참고한 책은 『禮記』였다. 주지하다시피 『禮記』는 유가사상의 총집이다. 여기에는 중국 고대의 중요한 禮制와 예의, 그리고 儀禮에 대한 해석 등이 총망라되어 있다. 특히 어떤 수양을 통해서 어떻게 참된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각종 준칙들이 많이 담겨 있어서 인성교육에도 대단히 유익한 책이다. 그리고 『童蒙須知』 역시 朱子が 어린이들로 하여금 기본적인 도리와 예절을 알 수 있도록 편찬한 修身書이다. 두 책 모두 학동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상식을 담고 있기에, 『弟子規』에서도 꼭 기본적인 것이면서도 필수적인 내용들을 대폭적으로 수용했던 것임에 틀림없다.

4. 『弟子規』의 구성과 내용 분석

『弟子規』는 “總敍”, “入則孝出則悌”, “謹而信”, “泛愛衆而親仁”, “餘力則以學文”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總敍”는 책 전체 내용을 아우르는 총칙에 해당되는데, 이는 孔子가 “집에 들어오면 효도를 해야 하고, 밖에 나가면 공경을 해야 한다. 신중하고 신용이 있어야 하고, 모두를 사랑할 줄 알아야 하며, 어진 사람과 친하게 지내야 한다. 행하고 남는 힘이 있으면 글을 배우도록 한다.”¹⁵⁾라고 한 『論語』 「學而」 편의 내용을 3字 1句¹⁶⁾로 재구성한 것이다.

“總敍” 외에 책의 내용은 크게 ‘부모에 대한 효도와 長者에 대한 공경’, ‘사회생활과 처세의 방법’, 그리고 ‘배움과 실천’이라는 세 주제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주요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부모에 대한 효도와 長者에 대한 공경

부모에게 효도하고 長者를 공경하는 태도는 학동들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가치다.

14) 李慧霞, 『『弟子規』의 成書背景研究』, 『文教資料』, 2014, p.2 참조.

15) 『論語』, 明文堂, 1971, p.56. “弟子入則孝, 出則悌, 謹而信, 泛愛衆, 而親仁, 行有餘力, 則以學文.”

16) 李毓秀原著, 陳才俊主編, 『弟子規』, 海潮出版社, 2011, p.2. “弟子規, 聖人訓. 首孝弟, 次謹信. 泛愛衆, 而親仁, 有餘力, 則學文.”

따라서 『弟子規』에서는 이 덕목에 대한 내용을 가장 먼저 안배해 놓고, 집안에서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밖에 나가서는 윗사람을 공경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즉 가정이 화목하고 사회의 위계질서가 유지될 수 있는 그 기본 이치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효도에 관한 내용으로, “入則孝”라고 제목을 붙이고 총 56구로 구성을 해 놓고 있다.

인생에서 아직 경험이 부족한 유년기는 개인의 주관이나 도덕관념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정에서의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사소한 응대나 청소 등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자연스런 순서다. 본 章의 내용은 다름 아닌 공자가 “효도는 덕행의 근본이요, 모든 교육은 이것에서 시작된다.”¹⁷⁾라고 말한 효도 사상을 구체화해 놓은 것이라 할 수 있다. 孔子는 효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효자가 부모를 섬김에 있어 부모가 집에 계실 때는 공경함을 극진히 하고, 음식으로 봉양할 때는 그 즐거워함을 극진히 하고, 병이 들었을 때는 그 근심을 극진히 하고, 초상을 당했을 때는 그 슬픔을 극진히 하고, 제사를 지낼 때는 엄숙함을 극진히 해야 한다. 이 다섯 가지를 갖추면 뒤라야 부모를 잘 섬겼다고 말할 수 있다.¹⁸⁾

“入則孝” 장은 바로 『孝經』의 핵심을 어린 학동들이 실천하기에 가능하도록 조목조목 나열해 놓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물은 근원이 있고, 나무는 뿌리가 있으며, 부모는 자식의 뿌리요 근원이다.”¹⁹⁾라고 한 중국의 전통적 유교사상에 근거하여, 자식은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전에는 정성을 다해 모시고, 돌아가신 후에라도 지극함에 변함이 없도록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은 ‘윗사람’에 대한 공경을 교육하는 내용이다. 여기서 윗사람이란 ‘兄’, 즉 형(오빠)과 누나(언니)를 포함하여 가정 밖의 모든 ‘長者’를 가리킨다. “出則弟”라는 제목 아래 총 44구로 구성하고 있다. 강조의 핵심은 주로 三綱五倫 중의 長幼有序의 정신에 입각한 상하 위계질서에 대한 내용이다. 앞 장에서 부모에 대한 효행을 잘 이해시킨 후, 이제는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지켜야 할 일상의 사회규범을 교육시키는 대목이 이 “出則弟” 章이다. ‘弟’는 ‘공경’이란 의미를 가진 ‘悌’와 같은 글자로, “찬물에도 위아래가 있다.”는 우리말 속담에 담긴 ‘질서’와 ‘공경’ 정신을 실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윗사람에 대한 공경은 효도의 연장이다. 형제가 우애하고 화목할 때 부모가 기뻐하게 되고, 예의범절을 잘 실천함으로써 주위 어른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 또한 효도의 일부라 할 수 있다. 때문에 본문에서도 “형은 아우에게 우애로서 대하고, 아우는 형에게 공손하게 해야 한다. 형제 사이가 화목하면, 효도는 바로 그 안에 있다.”²⁰⁾라고 강조하고 있다.

중국의 전통 유교문화 속에서 長者와 연소자 사이에는 엄격한 구분이 있었고, 그 속의 先後·尊卑 관념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거스를 수 없는 하나의 불문율

17) 『孝經』, 遼寧少年兒童出版社, 2004, p.86. “夫孝, 德之本也, 教之所由生也.”

18) 『孝經』, 遼寧少年兒童出版社, 2004, p.107. “子曰, 孝子之事親, 居則致其敬, 養則致其樂, 病則致其憂, 喪則致其哀, 祭則致其嚴, 五者備矣然後, 能事親.”

19) “水有源, 木有本, 父母者, 人之本源也.”

20) 李毓秀原著, 陳才俊主編, 『弟子規』, 海潮出版社, 2011, p.46. “兄道友, 弟道恭, 兄弟睦, 孝在中.”

과도 같았다. 여기서 더 발전된 사상이 노인에 대한 경로사상이다. 중국 전통미덕 중의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덕목이다. “出則弟” 章은 바로 이런 전통사상을 계승·발전시키고, 자녀들이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사회질서에 잘 융화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는 것이다.

2) 사회생활과 처세의 방법

이상의 내용이 부모를 포함한 長者에게 행할 ‘孝敬’의 방법을 제시한 내용이었다고 한다면 본 절에서 다룰 내용은 남녀노소·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회생활을 해 갈 때 준수해야 할 도덕규범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개인의 修身에 관한 내용도 적지 않지만, 타인과의 왕래에서 지켜야 할 기본 예의나 도덕적 준칙 등을 제시하고 있는 내용 또한 적지 않다. 그 방법으로 책의 編者는 ‘신중할 것’, ‘신용을 지킬 것’, ‘널리 사랑할 것’, ‘어린 자와 친할 것’ 이 네 가지 행동지침을 중심으로 풀어나가고 있다. 이를 차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謹”이라는 제목으로 ‘신중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총 68구로 구성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자제들이 사회에 나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모두가 ‘신중함’으로 귀결을 시키고 있다. 어떤 일이든 성공의 시작은 조그마한 일로부터 비롯되고, 고상한 인품 역시 사소한 행동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사에 신중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바람직한 사회질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자기반성’ 또한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혹자의 설명처럼 “是非之心이나 廉耻之心, 그리고 惻隱之心과 같은 아름다운 사상은 사람 됨됨이를 말해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공동의 사회질서를 성공적으로 유지·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사상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사람들이 謹愼하는 태도로 자기를 해부하고, 성현의 교훈에 근거하여 小我를 위한 어떤 욕심이나 전체를 해치는 이익추구는 제거되어야 하는 것이다.”²¹⁾ 이와 같은 전통사회의 가치관과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謹” 章의 핵심이다.

두 번째는 “信”이라는 제목으로 ‘신용’을 강조하고 있는데, 총 60구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생활은 인간관계 속에서 이뤄지고, 신용은 상호간의 관계망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 주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사람간의 신뢰가 무너지면 존재가치는 상실되고 그 어떤 사회적 역할도 담당할 수가 없게 된다. 따라서 처세에서 중요한 덕목은 신용이 아닐 수 없다. 본문은 사회생활을 함에 경거망동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가도록 訓導하고 있다. “정직한 사람은 그 정직함을 지키기 때문에 하늘이 그를 좋아하며, 당신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하늘도 당신을 사랑해줄 것”²²⁾이라고 하는 중국 속담이 보편적인 세상의 이치임을 다양한 상황과 설명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는 “泛愛衆”이라는 제목으로 ‘사람들을 널리 사랑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총 60구로 구성되어 있다.

21) 朱浩·韓賢强, 『『弟子規』與當代社會秩序的重構』, 『長江論壇』, 2013, p.80 참고.

22) “正人守正, 天之所喜, 你幫扶他, 天也愛你.”

인간은 속성 상, 외모지상 주의에 빠지기 쉽고, 남보다 조금 우월하면 과시하기 쉬우며,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 때로는 배은망덕한 행동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본문은 ‘사랑’을 핵심으로 하여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놓치지 않도록 조목조목 설명을 해 놓고 있다. ‘사람들을 널리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미시적으로는 일상에서 겪게 되는 여러 모양의 갈등들을 해소하는 데 최고의 묘약이 아닐 수 없고, 거시적으로는 국가와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중요한 초석이 된다. 본문의 내용은 바로 이런 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표현들을 통해 강조하고 있다.

네 번째는 “親仁”이라는 제목 아래 ‘어진 이와 친하게 지낼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총 16구로 구성되어 있다.

사전에서 “仁”이란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동정해 주는” 일종의 도덕 행위라고 설명하고 있고, 공자는 “仁”을 “義”와 연관시켜 설명하기를, “仁이란 사람다운 것으로, 친근한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중요하며, 義란 마땅함으로, 어진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 중요하다. 친근한 사람을 친하게 함의 무등급성과 어진 사람을 존중함의 등급성으로부터 禮가 생겨난다.”²³⁾라고 하였다. 禮의 핵심은 “仁”과 “義”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정신에 입각하여 『弟子規』에서 “어진 사람과 친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서, 德은 날로 쌓이게 되고, 실수는 날로 줄어들게 될 것”²⁴⁾이라고 쉽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弟子規』 중 “總敍”를 제외한 총 7章 중에서 내용이 가장 짧은 것이 특징이기도 하다.

3) 배움과 실천

공부는 立身揚名을 하는데 있어서 기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고금을 막론하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공부를 강조해 왔으며, 대부분의 童蒙書에서도 이 점을 강조하고 있다. 『弟子規』에서는 맨 마지막 章에 “餘力學文”이라고 제목을 붙이고 총 48구로 주요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주목되는 점은 사람이 공부만 잘 해서 높은 관직에 오를 것을 격려하고 있기 보다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공부에 초점을 맞추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문에서 “힘써 행하지는 않고 단지 학문에만 힘쓰면 성장이 浮華하여 어찌 사람다운 사람이 되겠는가?”²⁵⁾라고 한 다음, “단지 힘써 행하기만 하고 글을 배우지 아니하면, 무턱대고 자기 견해만 내세우고, 이치와 진리에 대해서는 모르게 된다.”²⁶⁾고 하였다. 이는 지식만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이치에 근거하여 사람이 서로 소통하고 배려할 수 있는 인간다움을 배우는데 힘쓰라는 말이다. 다시 말해 훌륭한 품성을 닦아 놓고 난 다음에 깊이 있는 학문에 집중하라고 勉勵하고 있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고대 사람들은 성현들의 사람 됨됨이나 처세 방법 등을 잘 배운 뒤에 좀 더 수준 있는 이치와 전문 지식을 배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회생활 속에서 부단하게 각자의

23) 『中庸』, 明文堂, 1971, p.251. “仁者人也, 親親爲大, 義者宜也, 尊賢爲大, 親親之殺, 尊賢之等, 禮所生也.”

24) 李毓秀原著, 陳才俊主編, 『弟子規』, 海潮出版社, 2011, p.198. “能親仁, 無限好, 德日進, 過日少.”

25) 위의 책, p.204. “不力行, 但學問, 長浮華, 何成人.”

26) 위의 책, p.204. “但力行, 不學文, 任己見, 昧理眞.”

천성과 재능을 갈고 닦으며, 그런 과정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자아를 실현하는 것을 정상으로 보았다. 그러기 위해서 『弟子規』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공부 방법으로 “三到”를 제시하고 있다. 즉, “독서법에 三到가 있으니 마음과 눈과 입으로 해야 한다.”²⁷⁾는 것이다. 그리고 “마음에 의심되는 바가 있으면 수시로 기록을 해 두었다가, 사람에게 물어 그 의미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²⁸⁾고 말하고 있다. 대단한 집중력과 집요한 학습태도를 강조하는 말이다. 특히 독서를 할 때는 유가 경전을 교과서로 삼도록 하고, “성인의 글이 아니면, 이를 멀리하고 읽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 이유는 경전이 아니면 “충명함을 가리고 마음속의 의지를 망쳐놓기 때문”²⁹⁾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독서나 학습은 확실히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올바른 도덕관념과 가치관을 정립시키는데 유익한 방법이요, 더 높은 이상을 실현하는데 반드시 열성을 쏟아야 하는 길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올바른 독서법을 어려서부터 습관화시키고 이것을 평생 재산이 되도록 교육시키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弟子規』에서는 이 점을 결론처럼 강조하고 있다.

책의 맨 마지막은 “스스로 지나치지도 말 것이요, 스스로 포기하지도 말 것이며, 거룩함과 어쭙도, 점점 훈련을 통해 높은 경지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³⁰⁾는 말로 정리를 하고 있다. 평상심을 가지고 부단히 노력해감으로써 사회 질서에 부합되고 공동 사회에 이바지하는 고상한 삶의 주인이 되도록 하라는 충고라 할 수 있다.

5. 인성 교재로의 활용과 현실적 문제점

『弟子規』는 識字와 인성교육을 목적으로 편찬된 童蒙書였지만, 그 활용도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소간의 浮沈이 있었음을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책은 학습자들의 욕구를 상당히 만족시켜주었고 그 영향 또한 적지 않았다고 평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특히 그 가치가 높이 평가되면서 이를 國學 열기의 중심에 놓고, 적극적으로 『弟子規』 교육에 신경을 쓰고 있는 실정이다. 識字교육 차원보다는 인성교육 차원에서 더 그렇다. 즉, 『弟子規』의 정신을 잘 숙지하고 그 내용을 현실생활에 적극 실천함으로써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한 올바른 가치관과 도덕규범을 회복하기 위함이다.

개인의 바람직한 윤리관과 가정의 원만한 질서는 국가 발전의 초석이 되지만, 사회에서 야기되는 각종 문제점들의 대부분은 각 가정에서 잘못 형성된 개인의 가치관과 습관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으니, 『弟子規』를 편찬할 때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것이 바로 이점이다. 그러나 이런 교육의 의도가 잘 적용되고 실천될 수 있었던 과거의 사회 환경은 이미 변화되어버렸고, 물질만능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에 와서 『弟子規』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고리타분한 윤리처럼 되어버린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런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27) 李毓秀原著, 陳才俊主編, 『弟子規』, 海潮出版社, 2011, p.207. “讀書法, 有三到. 心眼口, 信皆要.”

28) 위의 책, p.213. “心有疑, 隨札記. 就人問, 求確義.”

29) 위의 책, p.222. “非聖書, 屏勿視, 蔽聰明, 壞心志.”

30) 위의 책, p.224. “勿自暴, 勿自棄, 聖與賢, 可馴致.”

현재 중국에서는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윤리도덕을 회복시키는 교육을 중시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동몽서 『弟子規』를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으로 교육시킴으로써 가정에서는 부모형제간에 효도와 우애를 실천하도록 하고, 사회에 나가서는 신용과 사랑을 바탕으로 타인을 공경하고 배려하도록 하려는 것이 최근 중국이 國學 교육에서 꾀하고자 하는 목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弟子規』를 교육시키거나 암송을 중용할 수는 있으나, 내용 중에 시대에 뒤떨어진 사상이나 예의 등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점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일각에서는 봉건시대에서나 통용될 수 있었던 내용을 오늘에 적용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거나 수정한 후 교육을 시키는 것이 옳다고 주장을 하고, 한편에서는 經典의 내용은 훼손할 수 없는 것이므로, 혹 현실생활과 다소 괴리가 있다 할지라도 학습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이처럼 상반된 두 주장이 교육현장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실행이 되고 있으니, 이런 혼란스런 문제점은 다음과 같은 현상에서 쉽게 알 수가 있다.

山東省 교육청에서는 “가치 없는 내용”이 “학생들의 가치관을 왜곡시키고, 초·중학생들의 정서가 망가질 것”을 염려한 결과, 초·중학생들에게 “내용을 선별하지 않고” 『弟子規』, 『三字經』, 『神童詩』 등의 全文을 추천하지 못하도록 행정명령 방식으로 금지를 시켰다. 湖北省 여러 지역에서 편집한 경전 독본에서도 “옛날에 맹자 어머니는 이웃을 가려서 살았다.”라든가 “책 속에는 황금으로 지은 집이 있고, 책 속에는 옥처럼 예쁜 여인이 있다.” 등과 같이 비과학적이거나 혹은 시대와 어긋나는 내용들을 삭제하였다. 이와는 상반되게 북경시에서는 2011년 하반기에 북경시 전체 초·중학교에 삭제하지 않은 교재 『弟子規』를 널리 보급하겠다고 선포하였다.³¹⁾

蒙學 교재를 보는 시각에 따라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현상이다. 삭제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의 첫째 이유는, 몽학교재의 일부 내용은 봉건 사회의 산물로, 전통문화의 찌꺼기요 현대교육에 부합되지 않는 점이 많기 때문이며, 둘째는 현재 청소년들의 사회생활과는 거리가 멀고 현대 가치관과는 위배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요, 셋째는 고대에서도 사안에 따라 전적들을 편집·수정 한 후에 교육을 시킨 예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반면 삭제나 수정을 반대하는 자들의 주장은 첫째, 삭제나 수정은 경전의 완벽성을 해쳐서 결국은 전통을 해체하고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며, 둘째는 삭제하는 행위로서 모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요, 셋째는 전통 경전의 내용을 삭제하는 것은 학생들을 誤導시키거나 분석하고 감별하는 능력을 잃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³²⁾

이상의 주장들은 모두 나름의 논리를 갖추고 있지만, 취사선택을 해야 할 때 필자로서의 생각은 후자의 방법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사료된다. 그 이유로는 전자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전통 문화와 정신을 계승·발전시킴과 동시에 이를 인성교육과

31) 李香平, 「論蒙學教材在青少年教育中的當代價值與理性繼承—以『三字經』、『弟子規』爲例」, 『中國青年研究』, 2012, p.109. “山東省教育廳因爲擔心‘帶有糟粕性的內容’會‘扭曲了學生的價值觀念, 腐蝕了中小學生的心靈’, 以行政命令的方式禁止中小學‘不加選擇地’全文推薦『弟子規』、『三字經』、『神童詩』等. 湖北省各地在編印的經典讀本裏, 也刪減了‘昔孟母, 擇鄰處’、‘書中自有黃金屋, 書中自有顏如玉’等被人認爲不科學或與時代相悖的內容. 與此相反, 北京市宣布於2011年下半年擬全市中小學推廣未刪減版『弟子規』.”

32) 위의 책, p.110 참조

연계시키고자 하는 國學 교육에서는 전통의 실상은 그대로 유지시키되, 대신 교육을 담당한 학부모나 교사들이 이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설명을 통해 그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한다면 그 우려는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오늘에 맞지 않는 무가치한 특정 내용이나 봉건적 가치관, 그리고 시대에 뒤떨어진 윤리의식 등은 교육의 현장에서 서로 토론하고 고민하면서 취사선택을 하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확실히 『弟子規』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 중에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무가치한 내용들이 적지 않다. 예컨대, “부모에게 잘못이 있으면, 말을 해서 고치도록 하되”³³⁾, 끝까지 간청을 들어주지 않을 때는 “소리를 지르고 울부짖으며 뒤를 따라 가다가, 구타를 당하더라도 원망함이 없어야 한다.”³⁴⁾는 대목이나, 웃어른이 “말을 타거나 내리고, 수레를 타거나 내릴 때는,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눈으로 백 보쯤 바라다보아야 한다.”³⁵⁾ “아버이 상을 당한 삼 년 동안은, 항상 애도를 해야 하고, 부부간의 잠자리를 따로 하고, 술과 고기를 금해야 한다.”³⁶⁾ “중들을 대할 때도, 몸을 단정하게 해야 한다.”³⁷⁾는 등등의 내용이 그런 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내용들도 교육자가 먼저 당시의 환경논리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고, 오늘날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이런 내용들도 비평하고 판단할 줄 아는 감별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 준다면 이 역시 교육의 하나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6. 나오기

시대마다 다양한 목적에 따라 편찬된 童蒙書들은 아동들이 초보적인 글자를 익히고 상식을 배우는데 도움을 줌과 동시에, 인성교육과 정서 함양에도 큰 역할을 담당해 왔다. 물론 시대 환경과 정치 지도자의 통치 이념에 따라, 또는 교재의 성격에 따라 모두가 동일하게 높은 평가를 받을 수는 없었지만, 중국에서의 각종 동몽서는 인재육성이라는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상에서 본고는 『弟子規』가 識字만을 목적으로 편찬된 책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도리와 바람직한 사회생활,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위한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과 규율 등을 제시해 주고 있는 윤리도덕 교과서임을 살필 수 있었다. 특히 최근에 와서 중국에서는 國學 열기와 함께 『弟子規』가 “어린이들에게 우수한 전통문화와 인성교육을 시키는 데 이미 필수 경전이 되었고”, 나아가 “대학·기업·당정 기관에까지 파급되어 대단한 영향을 주고 있다.”³⁸⁾는 것도 잘 알 수 있었다. 그 이유는 도덕수양 제고와 바람직한 가치관 수립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어느 조직이든 그 안의 직원이나 구성원들에게 소질을 배양하고 인화와 단결심을 강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33) 李毓秀原著, 陳才俊主編, 『弟子規』, 海潮出版社, 2011, p.26. “親有過, 諫使更.”

34) 위의 책, p.33. “號泣隨, 撻無怨.”

35) 위의 책, p.52. “騎下馬, 乘下車, 過猶待, 百步餘.”

36) 위의 책, p.39. “喪三年, 長悲咽, 居處變, 酒肉絕.”

37) 위의 책, p.189. “待婢僕, 身貴端.”

38) 毛清雲, 「『弟子規』熱現象的教育思考」, 『現代教育科學』, 2015, p.9 참고.

물론 『弟子規』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오늘날 그대로 적용하고 실천하기에는 다소간의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자의 적절한 해설과 시대정신을 잘 반영하여 올바르게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면, 지금에 와서도 어린이들의 인성교육 교재로 활용하기에 더 없이 좋을 것이라 판단된다. 전통문화 회복과 인성교육이라는 차원에서 『弟子規』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문제점으로 인식되는 내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대책은 다른아닌 우리 개인의 일일 수도 있지만, 또 우리나라 교육의 일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한자교육과 인성교육 교재로 활용해 오던 『四字小學』, 『推句集』, 『童蒙先習』, 『擊蒙要訣』, 『小學』 등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떻게 교육시켜야 一石二鳥의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 지혜를 모으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論語』, 明文堂, 1971.
 『童蒙先習』, 恩光社, 1991.
 『禮記』, 成均館大學校出版部, 1985.
 『中庸』, 明文堂, 1971.
 『孝經』, 遼寧少年兒童出版社, 2004.
 郭文斌, 『『弟子規』到底說了什麼』, 中華書局, 2011.
 李少林, 『中國傳統蒙學全書』, 中國書店出版社, 2007.
 安子琴, 『『弟子規』新解』, 金盾出版社, 2016.
 王俊閔, 『弟子規密碼』, 中國文聯出版社, 2010.
 李毓秀原著, 陳才俊主編, 『弟子規』, 海潮出版社, 2011.
 任登第·牛淑卿, 『大家都學『弟子規』』, 世界知識出版社, 2011.
 張明帥, 『每天讀點『弟子規』』, 朝華出版社, 2010.
 錢文忠, 『錢文忠解讀『弟子規』』, 中國民主法制出版社, 2010.
 鐘茂森, 『細讀弟子規』, 世界知識出版社, 2010.
 蔡禮旭, 『細講弟子規』, 華藝出版社, 2007.
 劉艷卉, 「我國古代蒙學識字教材的歷史沿革」, 『安陽師範學院學報』, 2002.
 李香平, 「論蒙學教材在青少年教育中的當代價值與理性繼承—以『三字經』、『弟子規』爲例」, 『中國青年研究』, 2012.
 李慧霞, 「『弟子規』的成書背景研究」, 『文教資料』, 2014.
 宋彥錫, 「從『弟子規』的歷史考察看傳統文化的現代價值」, 『焦作大學學報』, 2011.
 張迎春, 「『弟子規』的養成教育思想」, 『教學與管理』, 2001.
 張慧玲, 「『弟子規』對現代家庭教育的價值和意義」, 『山西師大學報(社會科學版)』, 2009.
 朱 浩·韓賢強, 「『弟子規』與當代社會秩序的重構」, 『長江論壇』, 2013.
http://www.hanban.org/confuciousinstitutes/node_10961.htm (검색일:2016.07.31.)

【논문초록】

키워드 Key Words	중문	弟子規, 童蒙書, 漢字教育, 人性教育, 傳統文化		
	영문	Dizigui, a book for children's learning, Chinese characters education, personality education, traditional culture		
<div>A study on children's learning materials for Chinese character education and personality education — Centering on contents and contemporary values of Dizigui</div> <div>Han, Sang-Deok</div> <p>Dizigui is children's learning materials for Chinese character education and personality education. However, it is considered to put more emphasis on ethical and moral education than Chinese character education. It consists of a total of eight chapters including "Introduction," but it can be summarized as three items. First, it pertains to a filial duty to parents and respect for one's seniors. Second, it pertains to social skills and the art of living. Third, it pertains to learning and practice. It is mostly focused on Confucian ideas represented by Confucius and elaborates on basic duty and rules for practical life that human beings should observe. As it contains some of old ideas and action guides that do not coincide with real life in the 21st century, it provokes controversy from time to time, but the Chinese educational circles are currently concentrated on teaching students to run through Dizigui based on the judgment that it can be useful learning materials for promotion of traditional culture and personality education. Dizigui that is being used as the most important teaching materials for personality education on the back of fervor for study of culture and heritage of the country is expected to be very helpful in making children in the contemporary society that is overflowing with individualism and materialism better understand traditional culture and restore desirable values and humanity. Meticulous analyses on the phenomena are expected to be a great help to Chinese character education and personality education provided based on such teaching materials as Four Character Teaching Text.</p>				
저 자 인적사항	성 명	한상덕 / 韓相德 / Han, Sang-Deok		
	소 속	경상대학교 중어중문학과		
	Em@il	hansd58@hanmail.net		
논 문 작성일시	투 고 일	2016년 08월 05일	심 사 일	2016년 09월 25일
	수 정 일	2016년 09월 28일	게재확정일	2016년 09월 29일